

VI. 北韓 動靜

1. 黃長燁의 亡命과 南北 關係

- (動機) 자신이 추진하던 국제주체제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서 한국과의 연계 등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 복합적인 개인적 사정이 있는 듯함
- (北韓에 미칠 影響) 주체사상의 퇴조·일부 핵심 권력층과 지식 계층의 동요·민심 이반 등 북한의 정치 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됨
 - 혁명 1세대의 퇴진과 2세대의 전면 부상·온건 개방파의 위축과 보수 강경파의 득세·내부 통제와 폐쇄성 강화 등 체제 정비와 내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보수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,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제한적 개방 정책과 외교적 온건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- (韓國에 미칠 影響) 논란을 빚고 있는 노동법과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에서 여권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
- (南北 關係에 미칠 影響) 북한의 황장엽 망명 허용과 한·미의 긴급 식량 지원 등으로 남북 관계가 이전보다 오히려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
 - 황장엽 사건 처리와 식량 등 대북 경제 지원 문제와 연계되어 4자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도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남북한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

오래 전부터
계획된 망명

- (概要)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(부총리급, 74세)가 2월 12일 駐中 한국 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함
 - 황장엽 : 김정일의 개인 교사와 김일성의 철학 담당 비서를 지낸 주체사상의 1인자이며, 개혁·개방을 지지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음

망명하지 않을
수 없는 뭔가 불
가피한 개인적
사정이 있는 듯

- (亡命 動機) 망명 동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며, 지난 해부터 망명을 준비해 온 듯함
 - 체제 불만 : 자신의 사회주의적 이상과 북한 현실간의 괴리에 따른 체제 회의감
 - 권력 투쟁 : 보수 강경파와의 사상 및 노선 갈등과 그에

다른 권력 핵심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 한계
 - 개인 동기 : 자신이 추진하던 국제주체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에서 한국과의 연계 등으로 인해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는 듯함

김정일 체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듯

- (北韓에 미칠 影響) 황장엽의 망명은 주체사상의 퇴조·일부 핵심 권력층과 지식 계층의 동요·민심 이반·김정일의 통제 능력 약화 등 북한의 정치 불안정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됨
 - 김정일은 숙청과 권력 재편 등 체제 정비와 내부 단속에 주력하며 당분간 보수화 경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됨
 - 혁명 1세대의 퇴진과 2세대의 전면 부상, 온건 개방파의 위축과 보수 강경파 득세, 내부 통제와 폐쇄성 강화 등이 예상됨
 - 특히 이번 사건으로 북한 권력 집단의 결속력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 정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, 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김정일은 더욱 군부에 의존할 것으로 평가됨
 - 하지만 기존의 제한적 개방 정책은 계속 추진될 전망

안기부법 개정 논란에 있어서 여권에 호재로 작용

- (韓國에 미칠 影響) 여권 주도의 안보 정국을 형성케 하고 있으며 안기부법을 기정 사실화 할 것으로 예상됨
 - 황장엽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검찰의 한보 수사가 조기 종결되고, 여권 주도의 안보 정국이 형성되고 있으며, 이는 경우에 따라 공안 정국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음
 - 이러한 안보 정국은 이미 통과된 안기부법을 기정 사실화하고 노동법 재개정에서 여권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안기부법 문제에 대해 야권이 한발 물러서고 있으며, 주사와 계열의 학생 운동이 와해되고 노동 운동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

황장엽의 망명
허용과 대북
식량 지원의
상호 교환

- (北韓의 態度 變化) ‘남치’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반발하던 북한이 17일부터 황장엽의 망명 허용을 시사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
 - 북한은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황장엽의 망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하면서 식량 등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외적으로 온건한 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
 - 북한은 황장엽의 미국행을 주장하고 있음

남북 관계가
오히려 호전될
가능성도 있음

- (南北 關係에 미칠 影響)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, 사건 발생 이후 고조되던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남북 관계가 이전보다 오히려 호전될 가능성도 있음
 -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화답으로 예정을 앞당긴 대북 식량 지원과 4자 회담 설명회 추진 등 대북 지원과 접촉의 속도를 다소 증대시키고 있음
 - 식량 지원 : 한국 6백만 달러, 미국 1천만 달러 규모
 - 정부는 경수로 사업과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,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음
 - 이번 사건으로 남북 경협 분위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, 북한의 내부 사정 등으로 4자 회담 설명회만으로 경협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듯함
 - 향후 남북 관계는 황장엽 사건 처리와 대북 실익 제공을 둘러싼 한국·미국·중국·북한의 상호 접촉과 협상 방향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이며, 이 과정에서 4자 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
 - 황장엽 사건 처리를 둘러싼 유관국들의 논의들은 사실상 4자 회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특히 이 과정에서 황장엽 사건 처리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

(이 태 섭)